

2017년 6월 17일 시행 / 지방직 9급 필기시험

국어 기출해설 (B책형)

해설 : 송은영 교수

문 1. 밑줄 친 말이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바닷물이 퍼레서 무서운 느낌이 든다.
- ② 또아리 튼 뱀은 쳐다보지 마라.
- ③ 머릿말에 쓸 내용을 생각해 뒤라.
- ④ 문을 잘 잠귀야 한다.

정답 ①

'퍼렇다'가 'ㅎ'불규칙 용언으로 모음 어미를 만났을 때 어간의 'ㅎ'이 탈락하고 '어미'의 형태 역시 변하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그래서 '퍼렇다'에 '-어서'의 어미가 오면 '퍼레서'가 되는 형태가 맞다.

[오답 풀이]

- ② '따리' ③ 머리말 ④ 잠가야

문 2. 밑줄 친 말의 의미는?

몇 달 만에야 말길이 되어 겨우 상대방을 만나 보았다.

- ① 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 말하다.
- ② 자신을 소개하는 길이 트이다.
- ③ 어떤 말이 상정되거나 토론이 되다.
- ④ 마음에 당겨 재미를 붙이다.

정답 ②

'말길이 되어'가 '몇 달 만에야', '겨우~ 만나 보았다'와 같은 문맥으로 쓰이고 있어 선택지에 있는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보면 답을 알맞게 고를 수 있었다.

말길이 되다 : 남에게 소개하는 의논의 길이 트이다.

[오답 풀이]

- ① 맛(을) 붙이다
- ② 말이 있다
- ④ 말꼬리를 물다

문 3. 괄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쌈 : 바늘 () 개를 묶어 세는 단위
 - 제(劑) :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 한 제는 탕약(湯藥) () 첩
 - 거리 :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 개
- ① 80 ② 82 ③ 90 ④ 94

정답 ④

- 쌈 : 「의존명사」

「1」바늘을 묶어 세는 단위. 한 쌈은 바늘 스물네 개를 이른다.

- 제(劑) :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 한 제는 탕약(湯藥) 스무 첩. 또는 그만한 분량으로 지은 환약(丸藥) 따위를 이른다.

- 거리 : 「의존명사」

오이나 가지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오십 개를 이른다.

문 4. 밑줄 친 시어에서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 동원된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는?

㉠春雨暗西池 / 봄비 내리니 서쪽 못은 어둑한데

輕寒襲㉡羅幕 / 찬바람은 비단 장막으로 스며드네.

愁依小㉢屏風 / 시름에 겨워 작은 병풍에 기대니

牆頭㉣杏花落 / 담장 위에 살구꽃이 떨어지네.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④

이 작품은 허난설헌의 '봄비'라는 작품이다. 규중 여인의 외로운 심사를 전달하면서 봄비와 찬바람에 떨어져 내리는 살구꽃이 자신의 신세와 같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봄비'와 '찬바람' 등은 객관적 상관물은 될 수 있지만 문제에서 '화자 자신과 동일시 되는 소재'를 찾으라고 했으므로 답이 될 수 없다. 객관적 상관물이면서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는 '행화(杏花)'이다.

[작품 해설]

- 갈래 : 한시, 오언절구
- 연대 : 조선 명종 때
- 성격 : 독백적, 서정적, 애상적
- 구성 : 선경(기승) 후정(전결)의 시상

○ 어조 : 애상적

○ 제재 : 못에 내리는 봄비, 담 위에 지는 살구꽃

○ 주제 : 젊은 여인의 고독과 우수(憂愁), 규중 여인의 고독한 심사(心思), 젊은 날을 보내는 여인의 고독과 우수

문 5.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 너머 성권농(成勸農) 집의 술 닥달 말 어제 들고

누은 쇼 발로 박차 언치 노하 지줄턱고

아히야 네 권농 거시나 덩좌슈(鄭座首) 왔다 ㅎ여라

① 화자는 소박한 풍류를 즐기며 살고 있다.

② '박차'라는 표현에서 역동성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③ '언치 노하'는 엄격한 격식을 갖추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④ '아히'는 화자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존재이면서도, 대화체로 이끄는 영탄적 어구이다.

정답 ③

'언치 노하'에서 '언치'의 뜻은 '말이나 소의 안장이나 길마 밑에 깔아 그 등을 덮어 주는 방석이나 담요'를 가리키는 말이다. 술을 먹으러 급하게 가는 바람에 급히 움직이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엄격한 격식을 갖추려는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벗의 집에 가서 술 한잔 하려는 태도는 소박한 풍류 생활이다.

② '박차'는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말로 역동성과 생동감이 느껴지는 표현이다.

④ '아이야'라고 부르며 아이에게 하는 말처럼 나타내어 대화체로 드러내고 있다.

문 6. 밑줄 친 말을 한자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 지루한 ㉠장광설로 인해 관중들은 하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 정보화 사회일수록 ㉡유언비어가 떠돌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 잘못을 저질렀다면 궁색한 ㉢변명보다 정직한 시인이 현명한 대응이다.

㉠ ㉡ ㉢

① 長廣舌 流言蜚語 辨明

② 長廣舌 流言非語 辯明

③ 長廣說 流言蜚語 辯明

④ 長廣說 流言非語 辯明

정답 ①

○ 장광-설(長廣舌) : 길 장, 넓을 광, 혀 설

「명사」

「1」길고도 세차게 잘하는 말솜씨. 「2」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

○ 유언-비어(流言蜚語) : 흐를 류, 말솜 언, 바퀴 비, 말솜 어

「명사」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

○ 변명(辨明) : 분별할 변, 밝을 명

「명사」

「1」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

「2」옳고 그름을 가려 사리를 밝힘. ≒변백(辯白).

[오답 풀이]

說 : (말솜 설, 달랠 세, 기뻐할 열)

非 : (아닐 비, 비방할 비)

辯明 (말솜 변, 밝을 명) : 말로 풀어 밝힘

문 7.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老主人의 腸壁에

無時로 忍冬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여 붉고,

구석에 그늘 지여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사리다가

바깥 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山中에 冊曆도 없이 三冬이 하이얏다.

- 정지용, 忍冬茶 -

- ① 산중의 고적한 공간이 배경이다.
- ② 시각적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 ③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인상을 준다.
- ④ '잠착하다'는 '여러모로 고려하다'의 의미다.

정답 ④

이 시는 정지용의 '인동차'로 시련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를 여러 가지 심상을 사용해서 동양적으로 나타낸 작품이다. '잠착하다'는 '참척하다'의 원말로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골똘하게 쓰다.'는 의미이다.

[오답 풀이]

- ① '山中에 冊曆도 없이 三冬이 하이얏다'라는 부분에서 '산중'의 고적한 배경을 알 수 있다.
- ② '붉고', '파랗고'의 부분을 통해 붉은 색과 푸른색이 시각적으로 대비되고 있다.
- ③ 시각적 심상이 잘 드러나고 있고 상황 묘사가 잘 드러나고 있으므로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인상을 준다.

문 8. "숙희야, 내가 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렸다."의 문장을 다음 규칙에 따라 옳게 표시한 것은?

우리말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등이 있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의 경우 높임은 +로, 높임이 아닌 것은 -로 표시하고 상대 높임의 경우 반말체를 -로, 해요체를 +로 표시한다.

- ① [주체 -], [객체 +], [상대 -]
- ② [주체 +], [객체 -], [상대 +]
- ③ [주체 -], [객체 +], [상대 +]
- ④ [주체 +], [객체 -], [상대 -]

정답 ①

'높임의 요소'를 찾아보면, '-께', '드리다'인데 모두 객체 높임의 요소이다.

문 9. '시'에 대한 견해 중에서 밑줄 친 칸트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은?

미적인 것이란 내재적이고 선형적인 예술 작품의 특성을 밝히는 데서 더 나아가 삶의 풍부하고 생동적인 양상과 가치, 목표를 예술 형식으로 변환한 것이다. 미(美)는 어떤 맥락으로부터도 자율적이기도 하지만 타율적이다. 미에 대한 자율적 견해를 지닌 칸트도 일견 타당하지만, 미를 도덕이나 목적론과 연관시킨 톨스토이나 마르크스도 타당하다. 우리가 길을 지

나다 이름 모를 곡을 듣고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처럼 순수미의 영역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곡이 독재자를 열렬히 지지하기 위한 선전곡이었음을 안 다음부터 그 곡을 혐오 하듯 미(美) 또한 사회 경제적,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 ① 시는 정제된 시어와 운율을 통하여 감상해야 한다.
- ② 시는 사회의 모순을 고발할 수 있고, 개혁의 전망도 제시할수 있다.
- ③ 시를 읽으면 시인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성장을 도모할 수있다.
- ④ 시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 상황을 알아야 한다.

정답 ①

예술은 작품 자체로 '미적'으로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칸트'의 견해지만, 작품 외의 맥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톨스토이나 마르크스, 글썬이의 견해이다. 따라서 칸트의 견해는 작품 자체 안에서 발견되는 요소로만 감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내재적 관점'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오답 풀이]

- ②④ 반영론적 방법
- ③ 효용론적 방법

문 10. 밑줄 친 말의 뜻이 옳지 않은 것은?

때는 한창 바쁠 추수 때이다. 농군치고 송이 ㉠파적 나을 놈은 생겨나도 앓았으리라. 하나 그는 꼭 해야만 할 일이 없었다. 쉬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저 그뿐. 그러함에는 먹을 것이 더러 있느냐면 있기는커녕 부쳐 먹을 농토조차 없는, 계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방은 있대야 남의 결방이요 잠은 ㉡새우잠이요. 하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한 친구가 찾아와서 벼를 털 텐데 일 좀 와 해달라는 걸 마다하였다. 몇 푼바람에 그까짓 걸 누가 하느냐보다는 송이가 좋았다. 왜냐면이 땅 삼천리강산에 늘어 놓인 곡식이 말짱 누 것이람. 먼저 먹는 놈이 임자 아니냐. 먹다 걸릴 만치 그토록 양식을 쌓아 두고 일이 다 무슨 ㉢난장 맛을 일이람. 걸리지 않도록 먹을 궁리나 할 게지. 하기는 그도 한 세 번어나 걸려서 구매밥으로 ㉣사관을 틀었 다마는 결국 제 밥상 위에 올라앉은 제 뭇도 자칫하면 먹다 걸리긴 매일반.....

- 김유정, 만무방 중에서 -

- ① ㉠ : 심심풀이
- ② ㉡ : 안잠
- ③ ㉢ : 몰매
- ④ ㉣ : 양쪽 팔꿈치와 무릎 관절

정답 ②

새우잠은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자는 잠. 주로 모로 누워 불편하게 자는 잠을 의미한다. '안잠'은 여자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일. 또는 그런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 11. 다음 시조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내히 죠타 ㅎ고 ㄴㅁ 슬흔 일 ㅎ지 말며
 ㄴㅁ이 ㅎ다 ㅎ고 義 아니면 좇지 말니
 우리ㄴ 天性을 직히여 삼긴 대로 ㅎ리라

- ① 率性 ② 善交 ③ 遵法 ④ 篤學

정답 ①

변계량의 시조로 타고난 좋은 심성(천성)을 지키며 살자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시조이다.
 따라서 '性(성품 성)'이 들어가는 ①이 맞다.

[오답 풀이]

- ② 善交 (착할 선, 사귄 교) : 좋게 사귀.
 ③ 遵法 (좇을 준, 법 법) : 법률이나 규칙을 좇아 지킴.
 ④ 篤學 (도타울 독, 배울 학) : 학문에 충실함.

문 12. 밑줄 친 말이 표준어인 것은?

- ① 큰 죄를 짓고도 그는 뉘연히 대중 앞에 나섰다.
 ②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갖가지 양념을 뒤어내고 있었다.
 ③ 사업에 실패했던 원인을 이제야 깨닫하게 되었다.
 ④ 그 사람은 허구한 날 팔자 한탄만 한다.

정답 ③

깨닫하다 : 오랫동안 생각해 내지 못하던 일 따위를 어떠한 실마리로 말미암아 깨닫거나 분명히 알다.

[오답 풀이]

- ① 버젓이
 ② 뒤져내고
 ④ 허구한

문 13. 밑줄 친 말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지조란 것은 순일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 확집(確執)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하다. 지조가 교양인의 ㉡ 위의(威儀)를 위하여 얼마나 값지고 그것이 국민의 교화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크며, 따라서 지조를 지키기 위한 괴로움이 얼마나 가혹한가를 헤아리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먼저 그 지조의 ㉢ 강도(強度)를 살피려 한다.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명리만을 위하여 그 동지와 지지자와 추종자를 ㉣ 일조(日照)에 함정에 빠뜨리고 달아나는 지조 없는 지도자의 무절제와 배신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하였는가.

- 조지훈, 지조론 중에서 -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④

‘一朝’(한 일, 아침 조)로 나타내는 것이 맞다. ‘日照’(날 일, 비철 조)는 햇빛이 내리쬐는 뜻이다.

[오답 풀이]

- ① 확집 (確執) : 자기의 의견을 굳이 고집하여 양보하지 아니함.
 ② 위의 (威儀) : 위엄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
 ③ 강도 (強度) : 센 정도.

문 14. 밑줄 친 말의 품사가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개나리꽃이 ㉠ 흐드러지게 핀 교정에서 친구들과 ㉡ 찍은 사진은, 그때 느꼈던 ㉢ 설레는 행복감은 물론, 대기 중에 ㉣ 충만한 봄의 기운, 친구들과의 악의 ㉤ 없는 농지거리, 벌들의 잉잉거림까지 현장에 있는 것과 다름없이 느끼게해 준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②

‘㉠ 흐드러지게, ㉡ 충만한, ㉣ 없는’는 ‘형용사’이고, ‘㉡ 찍은, ㉢ 설레는’은 ‘동사’이다.

문 15. 밑줄 친 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하나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당초에는 불완전하며, 다만 이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소수 특정 부분의 성공적인 결과를 약속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정착은 연구의 정밀화, 집중화 등을 통하여 자기 지식을 확장해가며 차츰 폭 넓은 이론 체계를 구축한다.

이처럼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진척시키는 것을 쿤은 ‘정상 과학’이라고 부른다. 기초적인 전제가 확립되었으므로 과학자들은 이 시기에 상당히 심오한 문제의 작은 영역들에 집중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더라면 상상조차 못했을 자연의 어느 부분을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된다. 그에 따라 각종 실험 장치들도 정밀해지고 다양해지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특정 기법과 규칙들이 만들어진다. 연구는 이제 혼란으로서의 다양성이 아니라, 이론과 자연 현상을 일치시켜 가는 지식의 확장으로서의 다양성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정상 과학은 완성된 과학이 아니다. 과학적 사고방식과 관습, 기법 등이 하나의 기반으로 통일돼 있다는 것일 뿐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수하다. 패러다임이란 과학자들 사이의 세계관의 통일이지 세계에 대한 해석의 끝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어떤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이미 이론의 핵심 부분들은 정립돼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의 연구는 근본적인 새로움을 좇아가지는 않으며, 다만 연구의 세부 내용이 좀 더 깊어지거나 넓어질 뿐이다. 이러한 시기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은 무엇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연구가 고작 예측된 결과를 좇아갈 뿐이고, 예측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패라고 규정되는 상태에서 과학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군은 이 물음에 대하여 '수수께끼 풀이'라는 대답을 준비한다. 어떤 현상의 결과가 충분히 예측된다 할지라도 정작 그 예측이 달성되는 세세한 과정은 대개 의문 속에 있게 마련이다. 자연 현상의 전 과정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론으로서의 예측 결과와 실제의 현상을 일치시켜 보기 위해서는 여러 복합적인 기기적, 개념적, 수학적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수수께끼 풀이이다.

- ① 여러 가지 상반된 시각의 학설이 등장하여 이론이 다양해지고 풍성해진다.
- ② 과학적 패러다임의 정착으로 이론의 핵심 부분들이 정립되어 있다.
- ③ 이 시기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처음에는 불완전하나 후속 연구를 통해 세계를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과학으로 발전된다.
- ④ 예측된 결과만을 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이 낮아진다.

정답 ②

네 번째 단락에서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이미 이론의 핵심 부분들은 정립돼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문 16. '잡다'의 유의어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의어	예문
죽이다	㉠
쥐다	㉡
어림하다	㉢
진압하다	㉣

- ① ㉠ : 할아버지는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
- ② ㉡ : 그들은 먹살을 잡고 싸우고 있다.
- ③ ㉢ : 술집 주인은 손님의 시계를 술값으로 잡았다.
- ④ ㉣ : 산불이 난 지 열 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정답 ③

'어림하다'는 '대강 짐작으로 헤아리다.'는 뜻을 갖고 있다. ③의 '잡다'는 '담보로 맡다'는 뜻을 갖고 있으므로 맞지 않는다.

문 17. 다음 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해안에서 밀물에 의해 해수가 해안선에 제일 높게 들어온 곳과 썰물에 의해 제일 낮게 빠진 곳의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간대라고 한다. 지구상에서 생물이 살기에 열악한 환경 중 한 곳이 바로 이 조간대이다. 이곳의 생물들은 물에 잠겨 있을 때와 공기 중에 노출될 때라는 상반된 환경에 삶을 맞춰야 한다. 또한 갯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의 파괴력도 견뎌내야 한다. 또한 빗물이라도 고이면 민물이라는 환경 에도 적응해야 하며, 강한 햇볕으로 바닷물이 증발하고 난다음에는 염분으로 범벅된 몸을 추슬러야 한다. 이러한 극단적이고 변화무쌍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만이 조간대에서 살 수 있다.

조간대는 높이에 따라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뉜다. 바다 로부터 가장 높은 곳인 상부는 파도가 강해야만 물이 겨우 닿는 곳이다. 그래서 조간대 상부에 사는 생명체는 뜨거운 태양열을 견뎌내야 한다. 중부는 만조 때에는 물에 잠기지만 간조 때에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곳

이다. 그런데 물이 빠져 공기 중에 노출되었다 해도 파도에 의해 어느 정도의 수분은 공급된다. 가장 아래에 위치한 하부는 간조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물에 잠겨 있다. 땅위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에선 다소 안정적이긴 해도 파도의 파괴력을 이겨내기 위해 강한 부착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생존이 쉽지 않은 곳이다.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은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종이 분포한다. 조간대를 찾았을 때 총알고둥류와 따개비들을 발견했다면 그곳이 조간대에서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인 것이다. 이들은 상당 시간 물 밖에 노출되어도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패각과 덮개 판을 꼭 닫은 채 물이 밀려올 때까지 버틸 수 있다.

- ① 조간대에서 총알고둥류가 사는 곳은 어느 지점인가?
- ② 조간대의 중부에 사는 생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③ 조간대에서 높이에 따라 생물의 종이 수직으로 분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④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이 견뎌야 하는 환경적 조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정답 ②

조간대 중부에 사는 생물은 나타나지 않는다. 두 번째 단락에서 조간대 중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생물은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세 번째 단락에 '조간대를 찾았을 때 총알고둥류와 따개비들을 발견했다면 그곳이 조간대에서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인 것이다.'의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세 번째 단락에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은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종이 분포한다.'의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첫 번째 단락에 '이곳의 생물들은 물에 잠겨 있을 때와 공기 중에 노출될 때라는 상반된 환경에 삶을 맞춰야 한다. 또한 갯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의 파괴력도 견뎌내야 한다. ...' 이어지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문 18. 다음의 개요를 기초로 하여 글을 쓸 때, 주제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론 : 최근의 수출 실적 부진 현상

본론 : 수출 경쟁력의 실태 분석

1. 가격 경쟁력 요인

ㄱ. 제조 원가 상승

ㄴ. 고금리

ㄷ. 환율 불안정

2. 비가격 경쟁력 요인

ㄱ. 기업의 연구 개발 소홀

ㄴ. 품질 개선 부족

ㄷ. 판매 후 서비스 부족

ㄹ. 납기의 지연

결론 : 분석 결과의 요약 및 수출 경쟁력 향상 방안 제시

- ① 정부가 수출 분야 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② 내수 시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 ③ 기업이 연구 개발비 투자를 늘리고 품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④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을 분석한 후 그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답 ④

본론의 내용을 보면 수출 부진의 원인을 '가격 경쟁력'과 '비가격 경쟁력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방안 제시'에 대한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내용은 ④이다.

[오답 풀이]

- ① '정부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개요표에 나타나지 않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② '내수 시장'의 기반 강화도 수출과 관련이 없다.
- ③ '비가격 경쟁력 요인'의 일부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문 19.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쪽에서 물건 하나를 맡아 주었으면 해요. 그건 ㉡우리 할머니의 유품이에요. ㉢저는 할머니의 유지에 따라 당신에게 그것을 전해야 할 책임을 느껴요. ㉣할머니께서는 ㉢본인의 생각을 저에게 누차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이죠. 부디 ㉣당신이 할머니가 품었던 호의를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할머니는 결코 말씀이 많으신 분이 아니었지요. ㉠당신께서 생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심정이 거기에 절실히 아로새겨져 있을 거예요.

- ① ㉠과 ㉢은 1인칭 대명사이다.
- ② ㉡은 ㉢과 ㉣을 아우르는 말이다.
- ③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 ④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답 ③

㉢의 '할머니'는 3인칭 표현이고, ㉣은 이미 언급된 사람을 다시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로 '할머니'를 가리킨다. 따라서 ㉢과 ㉣은 동일한 인물이다.

[오답 해설]

- ① ㉠은 '듣는 이'에게 쓰는 표현으로 2인칭 대명사이고, ㉢은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이다.
- ② ㉡은 1인칭 대명사이고, ㉢과 ㉣을 아우르는 말이 아니고 ㉢만을 의미한다.
- ④ ㉢의 '본인'은 앞에서 언급된 '할머니'를 의미하지만, ㉣의 '당신'은 '그쪽'을 의미한다.

문 20. 다음 글의 논증 구조를 옳게 파악한 것은?

㉠동물들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동물들도 우리가 사용하는말 못지않은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즉, 동물들도 여러 가지 소리를 내거나 몸짓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감정과 기분을 나타낼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의사를 교환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겉모습의 유사성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사람의 말과 동물의 소리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동물들이 사용하는 소리는 단지 배고픔이나 고통 같은 생물학적인 조건에 대한 반응이거나,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본능적인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동물들이 내는 소리가 때때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해서 그것을 대화나 토론이나 회의와 같은 언어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 ① ㉠은 논증의 결론으로 주제문이다.
- ② ㉡은 ㉠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한 것이다.
- ③ ㉢은 ㉠, ㉡을 부정하고 새로운 논점을 제시한 것이다.
- ④ ㉤은 ㉢, ㉣에 대한 근거이다.

정답 ③

‘동물들의 행동이 의사소통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는 내용을 ㉠에서 밝히고 있고, 이를 ㉡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라는 접속어를 사용해서 ㉢에서 반박하고 있고, 반박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이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에서 최종적으로 동물들의 소리가 인간의 의사소통과 같은 언어활동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은 결론이 아니다.
- ② ㉡은 ㉠의 부연이다.
- ④ ㉤은 주제문이면서 결론이다.